

근본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悟因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알아차리다(2부)

| 사랑나무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지난 4월 오랜만에 사랑나무 님이 함양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있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누님이신 평은 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깨어있기 워크숍에 안내하고자 왔다가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소개합니다.

사랑나무 님은 어려서부터(초등학교 입학 전) 죽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웬지 죽어도 끝이 아닐 거란 느낌 그래서 자주 한번 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사회 생활을 하고 25살쯤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지내던 중 마음속으로 더 이상 이렇게는 지내기 싫다. 모든 것이 지겹고 세상이 지겨워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고픈 갈증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낼 때 큰누님이 몇 권의 책을 보내 주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나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갈증이 해소됨을 느꼈고 그 뒤 또 다른 책이 월인 선생님의 《깨어있기》였습니다.

책의 내용이 알듯 말듯... 원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꿈림에 깨어있기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기 워크숍 마지막 날 밖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월인 선생님이 다가와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구가 가슴에 들어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런저런 체험과 통찰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월인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가?

사랑나무 음...

월인 지금은 어떤 마음인가?

사랑나무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순 없고 그냥 가벼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인 지금 '나'는 그럼 뭐야?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뭐지?

사랑나무 지금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월인 나타나는 모습이야?

사랑나무 네.

월인 그것이 진짜 '나'는 아니고?

사랑나무 네, 그건 아니죠.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또 감정에 따라서 그 '나'는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인터뷰가 끝나고 다른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제가 등장해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겠죠.

월인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사랑나무 네. 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저일 수는 없죠. 실은 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라고 해야 되니까, 일시적인 중심이니까.

월인 진짜 '나'를 보자고, 그러면 진짜 이 순간의 '나', 진정한 본성은 이 순간에 어떻게 확인되는 거지? 지금 확인이 돼?

사랑나무 봐야지 확인됩니다.

월인 무엇을 봐야지?

사랑나무 이런 상황을.

월인 보지 않을 때는? 대상을 만나지 않을 때는? 그때도 그런 본성이, 지금 말한 그것이 있나?

사랑나무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건 사라질 수 없죠.

월인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대상이 없을 때.

사랑나무 없을 때는 모릅니다. 앎이 없습니다.



월인 얇이 없으면 없는 것 아니야? 뭐가 있는 거지, 그럼?

사랑나무 그때는 없어요.

월인 그때는 없어? 그럼 그것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네?

사랑나무 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월인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란 뭐지?

사랑나무 만약에 제가 뭔가를, 그 근본이라고 해서 찾으러 가면 그걸 상상으로 밖에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순간의 그 근본이라는 것은 또 지금 만들어 버리거든요.

월인 그렇지. 지금은 그림자지. 지금은 그림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림자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지금 근본이 확인되냐 말이지.

사랑나무 봐야지 확인돼요.

월인 봐야지...

사랑나무 네.

월인 봐서 확인된다면 그것은 나타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바로 대상을 볼 때 나타나는 그것, 잡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지.

사랑나무 네 맞습니다.

월인 그렇다면 그놈도 대상을 볼 때만 나타나고 또는 대상을 보지 않을 때는 알 수 없는 것이지.

사랑나무 네, 그건 알 수 없어요.

월인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때는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사랑나무 네, 그건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월인 그렇다면 그 놈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놈 아냐?

사랑나무 지금 느껴지는 근본이라는 것은...

월인 아니, 확인하는 놈, 확인되는 것 말이야. 확인되는 것이, 대상이 있을 때만 확인된다고 하였지?

사랑나무 네.

월인 그럼 대상이 없을 때는 확인이 안 되고?

사랑나무 네. 대상이 없으면 확인이 안 돼요.

월인 그렇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럼 있다고 할 수 있나, 없다고 할 수 있나. 그걸 있다고 할 수 있나?

사랑나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월인 오케이. 그렇다면, 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대상을 볼 때는 그 놈이 있어, 그렇지? 확인 돼지.

사랑나무 네. 확인됩니다.

월인 그러니까 마음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

사랑나무 네, 나타날 수 있죠.

월인 그런데 대상이 없을 때는 확인이 안 돼.

사랑나무 네.

월인 그렇다면 그놈은 나타나지 않은 거지?



존재의 뿌리가
'아는 작용'에 가 있지 않고
미지에 가 있는 것, 그것이 핵심

사랑나무 그렇죠.

월인 그렇다면 그놈도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다, 한다는 거 아냐?

사랑나무 (침묵)

월인 지금 대상이 없을 때는 없잖아, 그렇지? 대상이 있으면 스스로 확인되니까.

사랑나무 네, 그것이 있어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월인 응?

사랑나무 그것이 있어서 확인되는 것은 아닌데,

월인 그것이 있어서 확인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사랑나무 네, 맞아요.

월인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야, 분명히, 그렇지?

사랑나무 네, 없는 것은 아니죠.

월인 그 놈이 있으니까 대상이 확인되는 것이란 말이지.

사랑나무 네. 그러니까.

월인 그러니까 그놈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 순간에는.

사랑나무 지금 순간에요.

월인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사랑나무 네,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월인 그럼 말하지 않고 대상을 확인하지 않을 때, 그때는? 마음에 어떤 대상도 없을 때는?

사랑나무 그것은 없죠.

월인 자, 그렇다면 그놈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놈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놈은 현상이 아닌가?

사랑나무 지금 놓고 보면 그건 현상이에요.

월인 음, 지금은?

사랑나무 네. 그것은 현상입니다.

월인 오케이, 그렇다면 그것이 현상이 아닌 건 아니네?

사랑나무 네,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월인 아하. 그렇다면, 현상 아닌 것은 뭐지? 우린 지금 현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나무 현상 아닌 것을 어떻게 발견하지요?

월인 그렇지. 발견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래서 통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경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통찰되면 이제, 뭔가 그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놈은 여전히 대상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놈이야. 일단 투명한 순수한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경험되는 거고.

사랑나무 네, 맞아요.



월인 그러니까 그 순수의식은 여전히 대상이야. 경험되니까.

사랑나무 네, 그것도 하나의 대상입니다.

월인 그리고 그것을 대상 삼는 놈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순수의식을 경험대상이라고 하는 거잖아.

사랑나무 네, 맞습니다.

월인 오케이. 그래서 그놈은 대상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지.

사랑나무 그것은 대상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월인 대상이 없다면 그놈도 사라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사랑나무 네 그렇습니다.

월인 그렇다면 그 놈도 본성은 아니지.

사랑나무 네..

월인 본성이라는 것은 뭐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말이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이 경험은 안 되지만 대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놈은 변화가 있던 말이지. 대상을 통해서. 있을 때 나타나고 확인되니까.

사랑나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는, 이 알아차림은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월인 어떤 알아차림?

사랑나무 지금 제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은... 약간...

월인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 무슨 알아차림?

사랑나무 지금 대상들이 나타났을 때 알아차려지는 이 알아차림.

월인 대상을,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사랑나무 예.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월인 그렇지. 그런데 그 알아차림도 나타난 것 아니냐는 말이야.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랑나무 그것은 있죠. 그것은 있어야죠. 없을 수가 없죠.

월인 어떤 것이?

사랑나무 내가 그것을 ‘봄’ 스스로 의식할 수가 없을 뿐, 그것이 의식되어지지 않는 않지만.

월인 그래. 확인 돼

사랑나무 대상이 이렇게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확인되지.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월인 오케이.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나무 그것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월인 그러나 그것이 지금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려지기도 하고, 대상이 없을 때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지. 대상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대상이 없을 때는 뭐냐 이 말이지. 그때는 어디 갔어?

사랑나무 그것은 제가 지금 자꾸 관점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체로 뭔가가 알아차려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또 다시 다른 관점에서 그림자처럼 만들어놓고 또 그것을 봐야 되니까...



월인 그림자처럼 만들어놓고 다시 보는 식의 반복은 하지 말자는 거야.

사랑나무 예.

월인 대상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최종적인 보는 놈에 대해서만 말해보자구. 그것을 우리가 ‘비개인적인 주체’라고 부르고 있어. 그것이 정말로 계속 있는 놈인가 아닌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대상이 있을 때는 있어, 그렇지? 그런데 대상이 없을 때는 어떠한 말이지.

사랑나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월인 없어. 그렇지?

사랑나무 예

월인 그렇다면, 그래서 또 다른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최종적인 것도 대상이 없을 때는 있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대상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있어.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지?

사랑나무 네.

월인 그렇다면 개는 분명히 확인될 때가 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이지. 뭔가 변화가 있잖아. 대상을 통해 분명하게 경험되고, 잡을 순 없지만 나타나 있을 때가 있고, 대상이 없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뭔가 각각 상태가 다르지. 다르다라는 것은 늘 향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되지.

사랑나무 네.

월인 그래서 이것이 늘 있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야.

사랑나무 그건 늘 있을 수는 없죠.

월인 그렇다면 그것은 마음의 작용에 해당하지.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용이란 말이야. 그것을 작용이라고 해야지, 참나나 참자아라고 할 만한 게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네. 즉, 작용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라고 해야 하는 거야.

사랑나무 마음의 작용입니다.

월인 자, 그렇다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 곳은 어디지? 어디서 일어난고 있지? 작용이 일어난다면 작용이 일어날 곳이 필요하겠지.

사랑나무 의식이라는 곳에서 펼쳐지는 것 아닌가요?

월인 ‘의식이 일어나는 곳’이겠지.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없음, 미지라고 한다는 거야.

사랑나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방법은 없어요.

월인 그래서 존재의 뿌리가 ‘아는 작용’에 가 있지 않고 미지에 가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야. 사실 미지는 가 있을 곳도 없지만 말이지.

사랑나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돌아갈 자리가 없다고.

월인 돌아갈 자리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랑나무 돌아갈 자리가 없지만, 그곳으로 가는 거죠.

월인 대상이 있을 때는 비개인적 주체가 확인된다면 그 역시 일종의 대상으로 돌아가 있는 거잖아.

사랑나무 그때는 중심축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월인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작용이라는 거야.



사랑나무 마음의 작용이죠. 지금 이 상황도 전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순간에 나도 같이 일어나고 지금 이것이 하나의 의식 작용, 마음 작용이고.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 배경은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를 넘어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월인 넘어선 것이지.

사랑나무 있다/없다와 같은 것으로 의미부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나라고 한다는 것이 가상적인 것일 뿐 어떤 것도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아지고. 있다/없다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확고해버려서 바꿀 수 없습니다.

월인 제대로 대답을 못해도 그것은 확고한 거지.

사랑나무 한번도 이렇게 질문 받아본 적도 없어서, 말이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인 경험은 좋지만 표현과 분별,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해지면 전달할 때 더 확고해지는 거야. 표현을 못한다고 흔들릴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표현이 명료해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야.

사랑나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내'가 나타나는 것도 전부 다 느껴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애씀을 줘도 그 밑에 뭔가 걸려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다 되더라고요. 아,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느껴졌어요. 애써서 뭘 한다는 것이 바보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교 언어로 육바라미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려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미 육바라미가 아니라는 것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월인 다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고 수련이 될 수 있어. 아직 명확히 보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나무 적어도 크게 나쁜 길로 가지는 않게 되겠죠.

월인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보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줬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없이 ‘하려고’ 하면 하려는 그놈이 있을 거 아냐? 저절로 없어진 사람은 된 거지만 그래도 그런 것 없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어떻게든 훈련의 차원에서는 괜찮지. 가장 안 좋은 것은 그것이 훈련차원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애쓰고 있는 마음이야.

사랑나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육바라밀은 아닌데, 저한테 품어져 나오는 것들이 마치 그동안 ‘내가 한다’라고 여겨지던 것이 ‘내가 한다’라는 것이 빠져버리고, 참나라고 얘기하면 마치 참나가 직접 하는 것 같고, 모든 상황에,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월인 참나라는 것이 있는 듯이 느껴지지.

사랑나무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지내고 하다가 며칠 깨어있기 참여하고 하니까, 주의, 감지, 감각 연습을 하는데 너무 잘 되더라구요. 너무 오래 전에 해서 잊어버렸을 것 같고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감지, 감각은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와서 해보니까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도움이 될 것이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월인 그래, 수고했네. 앞으로 흐름대로 잘 지내도록 하고. 종종 오게.

사랑나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